

기획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파리와 혁명



파리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 이 광장은 혁명 세금을 처음으로 납부한 보주 지방에 대한 예우로 1800년부터 보주 광장으로 불리고 있다.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21세기 거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현장 산책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프랑스 대선이 있던 지난 5월6일, 투표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8시 쯤 파리 동쪽 센강 우안에 위치한 바스티유 광장에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예측 결과는 사회당 올랑드 후보의 승리. 자유, 평등, 박애를 뜻하는 삼색기가 휘날리고 여기 저기서 함성이 쏟아졌다. 17년 만에 좌파 대통령을 맞이한 파리지역의 흥분은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시각, 우파인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 후보의 지지자들은 에펠탑 건너편의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여 고개를 떨궈야 했다. 올랑드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스티유 광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양왕 루이 14세 때 절정을 맞은 절대 왕정이 내리막길로 치달던 18세기 후반, 팽창한 삶에 지친 파리시민들은 공분을 참지 못하고 봉기했다. 성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1789년 7월14일은 전 세계에 왕가와 귀족들이 아닌, 민중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리는 프랑스 대혁명의 날로 기억된다. 쏟아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숨이 막힐 듯했던 현대 프랑스인들은 사람의 가치를 내세운 좌파 정권의 등장에 혁명에 버금가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혁명의 시초를 알린 것은 파리에서 서남쪽으로 15 km 가량 떨어진 베르사유였다. 강력한 왕권 아래서 유명무실했던 삼부회가 170여년 만에 루이 16세에 의해 소집됐다. 제 3계급 평민 대표들은 그러나 베르사유궁 바깥 테니스장에 모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혁명 한 달 전의 일이다.

베르사유 시내에 위치한 테니스장은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한 장소로 보관돼 있다. 왕궁으로 가는 길목에 군사적 목적으로 14세기 후반 건설된 바스티유 성은 혁명 당시 감옥과 무기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타깃이 됐다. 베르사유 테니스장에서 조직된 제헌 국민의회를 해산하기 위해 왕의 군대가 집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다. 혁명의 신호탄이자, 구체제(왕실의 폐지)의 종말을 알리는 날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오른 1799년까지의 10년간 진행됐다. 피를 부른 시민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바스티유는 프랑스인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훗날 빅토르 위고는 바스티유 인근 보주 광장으로 이사한 뒤 "파리 역사의, 아니 프랑스 역사의 한 증상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루이 16세가 헌법 제정 등 제 3계급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자 시민들은 왕가를 파리의 궁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1791년 루이 16세 부부는 프랑스를 탈출하려다 민중들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들은 탄압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왕정을 옹호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이웃 나라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한다. 1792년 9월 학살은 이들 군대에 프랑스가 있따라 패배한 데 따른 위기가

에서 나온 것이었다. 혁명군은 파리에서 반혁명 세력 제거에 나섰다.

"말도 안 되는 규칙과 명령에 따라 수천의 희생자가 학살됐습니다. 사냥과 잔인한 군중들은 교도소를 깨부수고, 가톨릭 사제나 귀족들의 집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1792-1795년 프랑스 체류기 : 프랑스 혁명의 증거가 된 편지들에서 발췌)

1792년 9월 어느 날 파리를 방문한 무명의 남자가 바스티유 광장 인근 도로인 생-안투안느 거리에서 목격한 장면을 지인에게 쓴 편지다. 필자의 눈에 혁명 발발 후 첫 번째로 실시된 공포정치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성지 순례 바스티유 광장 한 가운데 있는 탑은 1830년 7월 혁명을 기념해 1840년 완공된 것이다. 탑의 밑에는 1830년 혁명 때 사망한 시민들의 사체가 묻혀 있다. 탑의 꼭대기에는 날개를 단 금빛의 '자유의 신'이 햇살을 들고 서 있다.

바스티유 인근 구도심, 마레(Marais) 지구는 혁명 이후로도 개발되지 않아 좁디 좁은 골목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마레 한 켠에 자리한 보주(Vosges) 광장은 혁명의 역사를 품고 있다. 1612년 루이 13세의 약혼식을 위해 조성된 이 광장은 투와양 광장으로 불린다. 혁명 이후 시민공 광장, 포병 부대 광장, 무기 생산 광장, 개성의 광장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혁명의 기억은 시청 광장에도 남아 있다. 바스티유를 습격한 시민군은 며칠 후 시청 역시 점거한다. 바로 이곳에서 루이 16세는 파랑, 하양, 빨강의 삼색기에 키스하는 굴욕을 맞는다.

시청에서 센스 강 건너에 위치한 풍시에르주는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되기 전 수감돼 있던 감옥이다. 그녀의 독방은 관광객들이 볼러볼 수 있게 조성돼 있다. 풍시에르주는 그녀 외에도 당혹에 의해 제거된 지롱드파나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처형된 로베스피에르 등이 갇히는 등 혁명의 주요 인물들이 거쳐 간 곳으로 유명하다. 지금은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1792년 프랑스에는 공화국이 들어선다. 국민 공화국은 프랑스와 국민을 배신한 혐의로 루이 16세를 혁명 재판에 회부하고 사형을 의결한다. 이듬해 1월 루이 16세는 콩코드 광장에 설치된 단두대에서 사망한다. 그의 부인 마리-앙투아네트는 같은 해 10월 처형됐다. 콩코드 광장은 루이 16세의 기마상이 있어, '루이 16세 광장'으로 불린다. 혁명 발발과 함께 '혁명 광장'이 됐다. 이곳에서 처형된 인물들의 면면은 루이 16세 부부,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 화려하다. 혁명 광장의 단두대에서 1119명이 사망했다. 1795년 국민공화국의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고 총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광장은 '화합'을 뜻하는 '콩코드 광장'으로 바뀌었다.

1995년 우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콩코드 광장에 모여 시민들과 당선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에 앞선 1981년 공화국의 첫 좌파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은 바스티유 광장에서 당선의 기쁨을 나눴다. 지난날 초 올랑드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Advertisement for the Korea National Ballet's performance of Swan Lak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allerina in a white tutu. Text includes '국립발레단, 광주 최초 공연!', 'Swan Lake', '국립발레단 초청 '백조의 호수'', 'Korea National Ballet', and performance dates: '2012년 7월 6일(금) 오후 8시, 7일(토) 오후 5시' at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Ticket prices are listed as VIP: 88,000, R: 66,000, S: 44,000, A: 22,000.

Advertisement for the Korea National Ballet's performance of Swan Lake. It features a smaller image of a ballerina in a white tutu. Text includes '이 발레를 보지 않고 발레를 논하지 마라!',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발레의 명작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창단 5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국립발레단(KNB)의 클래식명작 발레 <백조의 호수>가 광주에 처음으로 방문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데렐라>, <차이코프스키-살과 죽음의 미스터리>, <볼랑프티의 밤> 등 현대레퍼토리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스펙트럼을 과시했던 국립발레단은 클래식 작품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역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백조의호수>는 전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끊임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로 로열발레단, 파리오페라발레단, 라스칼라발레단, 마린스키발레단, 볼쇼이발레단 등 세계적인 컴 파니들이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정수 중 정수인 작품입니다. 발레 <백조의호수>는 궁중 무도회에서 최고 기량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화려한 춤들도 장관이지만 신비로운 호수에서 스물